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www.police.go.kr



해양경찰청

제414호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대통령실, 野 3자회동 제안에 “여야 대표회담 상황 지켜봐야할듯”

이진복, 대통령-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상임위원장단 회동엔 “대통령도 응할 것”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나하고 먼저 만나자’고 다시 얘기하는 바람에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당사에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와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야 대표 간 만남이 어떻게 되는 지부터 지켜보고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지난 22일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취재진 질문 받는 이진복 정무수석

는 당무 복귀 첫날인 23일 수석대변인을 귀국한 뒤 여야 원내대표와 만남을 추진 통해 ‘대통령-여야 대표 3자 회동’을 역제 안하며 사실상 김 대표 제안을 거절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사실을 거론하며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은 언제든 찬성하실 거라 본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당시 상황에 대해 “원래 저번에 국회의장단하고 대통령실에서 식사할 때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것이다.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하는 식사를 국회의장이 마련하겠다면서 ‘참석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대통령이 ‘기꺼이 가겠다’고 했다”며 “당시 민주당에서 그 걸 못 받았고, 그래서 성시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은 언제든 찬성하실 거라 본다”며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장이 판단하고 양당에 의논하지 않겠나. 연락주시면 대통령도 응하실 거라 본다”고 말했다.

/ 이철웅 기자

Photo News



‘독도는 우리 땅’

독도의 날인 25일 대구 달서구 달서아트센터에서 열린 ‘독도 사랑 캠페인’에서 하늘정원유치원 원생들이 독도 티셔츠와 태극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시카법 여당과 충분히 협의 “박용진 주장 깊은 유감”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을 발표하기 전 여당과 충분히 협의했다며 당정 협의가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주장은 반박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에 보낸 공지문에서 “지난 18일 여당 정책위원장인 유의동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의원,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에게 해당 법안들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와 관련해 여러 차례 질의했던 법사위 소속 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도 법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박 의원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무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박 의원의 잘못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해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 당정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 안 했을 것 같다”며 “한동훈 장관이 마이크 잡고 폼 다 잡고 이야기하고 (법안을) 통과 못 시키면 국회 탓(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우려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성범죄자로부터 아이들과 국민 안전을 지키려는 것에 반대하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그런 분들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한 장관이 덜컥 얘기하고 뒷수습은 불쌍한 여당이 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며 “정부 여당 간에서 서로 의논 좀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일반 주거 지역에 살며 인근 주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형기를 마친 이들에 대한 이중 처벌이자 과도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도 나온다.

/ 배윤성 기자

럼피스킨병 방역에 한우고기 도매가 1주일만에 13%↑

충남, 경기 등에서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면서 1주일 만에 한우고기 평균 도매가격이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kg당 2만53원으로, 럼피스킨병 발생 이전인 1주일 전 1만7천723원과 비교해 13.1% 올랐다.

이달 매주 화요일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1만6천~1만7천원대 수준을 유지했으나, 럼피스킨병 발생 이후인 전날에는 2

만원을 넘은 것이다.

한우 고기 도매가격이 kg당 2만원을 넘은 것은 최근 한 달 새 처음이다.

kg당 소비자가격은 1등급 등심 기준 17일 9만2천760원에서 전날 10만250원으로 8.1% 올랐다. 이는 럼피스킨병 방역 조치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불안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럼피스킨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2시까지 전국 축산 시설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후 일부 지역에 한

해 명령 적용 기간을 연장해왔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방역 상황 브리핑에서 “이동 중지 기간 중에 도축장으로 출하돼야 할 소가 단기적으로 출하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섭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도 “평소에는 4천500~6천마리 정도가 나오는데 이동제한으로 월요일, 화요일에 (각각) 3천500마리 정도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실제 지난 5월 구제역 발생 당시에도

방역 조치가 강화되자 1등급 한우 고기 도매가격이 열흘 만에 약 9% 상승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럼피스킨병 발생이 전반적으로 한우 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는 소 356만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살처분한 소는 1천마리 정도로 비중이 미미하다.

또 지난 7월 기준 한우 고기 재고량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39.6% 증가해 충분한 상황인만큼,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는 지난 20일 처음 발생한 이후 이날 오전 8시까지 모두 29건으로 늘었다.

/ 송원기 기자

The advertisement highlights several key themes:

- Opportunities Abounding in Gyeonggi-do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The central theme, displayed prominently in large blue and green letters.
- Job Opportunities (일할 기회):** Represented by a man in a suit holding a tablet.
- Business Opportunities (창업할 기회):** Represented by a man in an apron.
- Study Opportunities (공부할 기회):** Represented by a woman in a school uniform.
- Love Opportunities (사랑할 기회):** Represented by a couple smiling.
- Living Opportunities (살아할 기회):** Represented by a woman smiling.
- Change Center of Opportunity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결기):** A small circular logo in the top right corner.

尹, 카타르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방문…스마트팜 수출 독려

尹 “이제는 팜이 아닌 팩토리”…스마트팜 시스템 직접 작동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수도 도하에서 열린 국제원예박람회를 찾았다.

사막 지역에서 처음 열린 대규모 국제원예박람회로 한국·네덜란드·사우디아라비아·일본 등 80여개국이 참가했다. 주제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이다.

이날 개관식이 열린 한국관은 정자와 우리나라 산수로 한국적 특색을 살린 애의 정원과 스마트농업 전시관으로 조성됐다.

윤 대통령은 한국관을 둘러본 후 중동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기업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원예박람회장에 도착하자 현지 교민들은 환호를 보냈고, 윤 대통령은 가볍게 인사한 후 한국관 정원으로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관에서 카타르 애미르(군주)인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도하 알 비다 공원에서 열린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을 찾아 한국형 스마트농업 전시관에서 농심의 스마트팜 수직농장을 살펴보고 있다.

르 국왕이 선물한 대추야자 묘목에 직접 물을 줬다.

카타르와 수직농장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수직농장 원격제어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

르나 아랍에미리트(UAE) 같은 사막 국가들은 채소나 이런 농산물을 재배가 어렵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걸 많이 쓸 텐데, 이렇게 베티컬팜(수직농장)으로 하면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몇 배 더 효율적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팜(농장)이

아니라 팩토리(공장)”라며 스마트팜 시스템을 직접 작동하고, 현지에서 국내 공장 조명을 원격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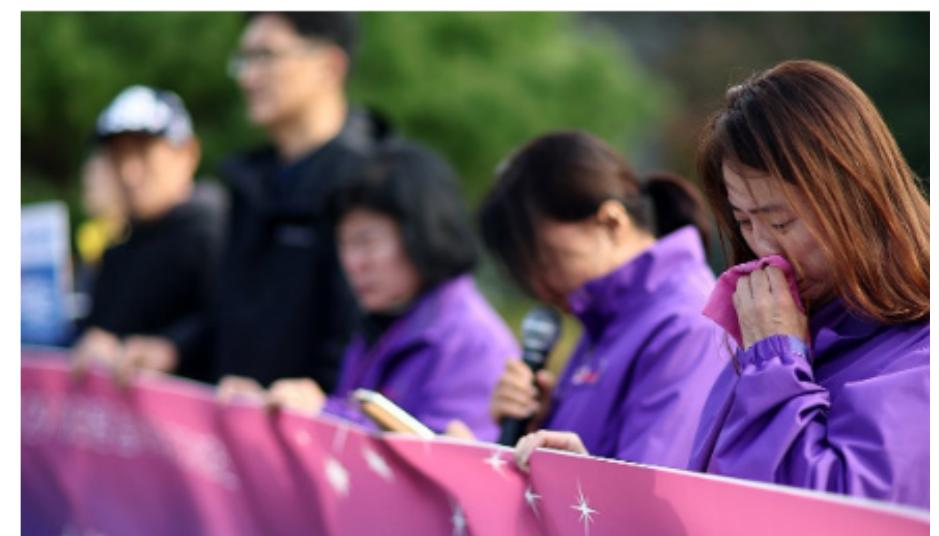
청년 기업인이 첨단 과학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작물 관찰 로봇도 소개됐다.

윤 대통령은 “네ーム시티가 만들어지면 큰 블록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도시형 농업을 한다는데, 그게 되면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밀폐형 스마트팜에서 나온 부여산 스테비아 토마토를 시식한 뒤 “이건 거의 뭐 설탕 찍어 먹는 맛”이라며 동행한 압둘라 빈 압둘라지즈 빈 투르키 알 수베이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에게 토마토를 쥐여주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활성화하고 있는 스마트팜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송원기 기자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닦고 있다.

이태원 참사 경험자 87%, 비대면 심리상담

유가족 1인당 3.7회

이태원 참사 경험자의 87%가 정부가 실시한 상담을 받았지만, 상담자와 대상자 간 상호작용에 제한이 생겨 깊이 있는 상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면과 비대면 상담을 모두 포함한 1인당 상담 횟수도 유가족 3.7회, 부상자 2.3회, 부상자 가족 2.4회, 목격자 2회에 그쳐 상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춘숙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 가족과 이웃, 친구가 유명을 달리한 재난”이라며 “대면 방식의 심리지원을 시작으로 치료 및 관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윤경 기자

곽상도 검찰 출석…“아들 한두차례 지원한게 경제공동체는 아냐”

‘50억 클럽’ 1심 무죄 8개월 만에 소환조사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아들 곽병채씨와의 경제적 관계, 병채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9시 51분에 검찰청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지만 저와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저와는 무관하다”며 종전처럼 혐의를 부인했다.

아들 병채씨가 보석 보증금을 내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속되었고 아내가 사망해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며 “출소한 다음 곧바로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아들이 취업 후에도 곽 전 의원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 역시 부인하면서 “(검찰이 아들과 자신을)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한두차례 지원해준 게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함으로써 적법하게 받은 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해결사’ 역할

을 한 대가로 이 돈을 받았다고 본다.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이탈을 막고 그 대가로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50억원이라는 퇴직금이 사회 통념상 과하다면서도 이를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볼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는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공동체라는 검찰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뒤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 남정호 기자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재판서 혐의 인정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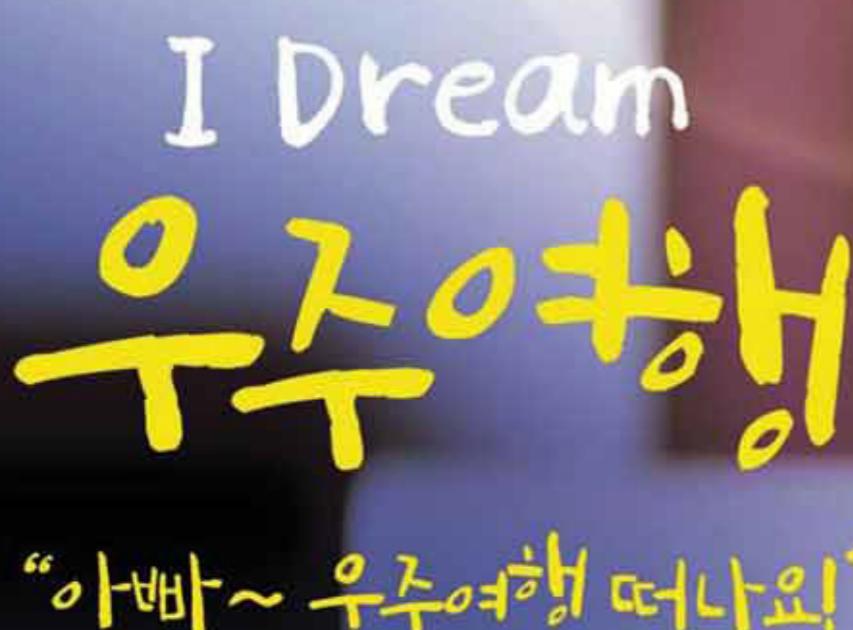
김 전 대표는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 묻는 판사의 말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

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 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대마 흡연과 관련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사퇴했다.

/ 임형순 기자



민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KEY가 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럼피스킨병 백신 400만마리분 도입…내달 초까지 전국서 접종

당국 “백신접종 완료 뒤 내달 중 확산 추세 안정화 전망”

방역당국은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 백신 400만마리분을 이달에 추가로 도입해 다음 달 초까지 전국 소 농장에서 접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최근의 럼피스킨병 확산세는 항체가 생기는 다음 달에는 안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백신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백신 127만마리분을 오는 28일까지 도입하고, 31일까지 273만마리분을 도입해 모두 400만마리분을 추가로 확보한다.

중수본은 현재 미리 확보한 백신 54만마리분을 이용해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



인근 농장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

획”이라며 “백신접종이 차질 없이 완료되면 다음 달 중 럼피스킨병 발생추세가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는 럼

피스킨병이 발생한 시·군과 인접한 시·군 소재 농장에서 소의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지난 20일 처음 발생이 확인된 럼피스킨병은 이날 오전 8시까지 모두 29건 확인됐다.

중수본은 첫 발생 농장 소의 임상 증상을 통해 지난 달 중순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입 경로에 대해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흡혈 곤충이 해외에서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선박 등 항만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 등을 놓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강동호 기자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의대정원 증원규모 논의 없었다 연말까지 집중검토”

“오늘내일 결정할 문제 아냐 정밀 수요조사 필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5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규모와 관련해 “오늘내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진 바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숫자를 기준 내키는 대로 2배, 3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 필요한 지역의료 인력과 필수의료 과목 인원, 교육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등에 대해 정밀한 수요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단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한 번에 하든지 이런 방법도 같이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의료단체와 의료서비스 수요자, 야당과 교감도 중요하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300명에서 3천명 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각 언론이 평소의 생각들을 숫자에 반영해 기사로 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논의할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혁신 테스크포스(TF)’는 이르면 이번 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JTBC 위원장은 유 의장이 맡았고, 국회 보건복지위(강기윤)·교육위(이태근)·예산결산특위(송언석) 여당 간사가 참여한다. 의료정책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외부 인사들도 TF에 참여할 예정이다.

/ 권정석 기자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광복 초석 된 장군의 길 언제나 기억”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독립유공자 최고로 예우하는 것이 국가보훈부 책무”

홍범도 장군 순국 제80주기 추모식이 25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렸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추모식에서 을미사변 직후부터 의병과 독립군을 이끈 홍범도 장군의 행적을 기리며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승전은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 됐다”며 “일제의 압제 속에서 우리 민족은 때때로 좌절은 했을지언정 독립에 대한 희망의 끈은 놓

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조국을 위해 용감히 싸웠던 장군은 이역만리에서 광복을 보지 못하고 순국했지만, 장군의 길은 수많은 애국 청년의 길이 됐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1945년 마침내 광복을 쟁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셨고, 윤석열 정부는 장군을 비롯해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분을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모시고자 독립기념관

에 효적을 창설했다”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독립영웅들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국민들이 언제나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게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박 장관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빈 민주당 의원,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배우 조진웅을 비롯해 무호적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운동 관련 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홍범도 장군 추모사, 헌화, 분향,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홍범도 장군은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의병을 일으키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의병과 동포들을 중심으로 대한 독립군을 창설, 국내에 잠입해 혁신진·자성군 등에서 일본군을 급습해 전과를 거뒀다. 1920년 일제의 독립군 탄압 계획 등에 맞서 독립군부대를 지휘, 일본군 대부대를 무찌른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을 승전으로 이끌었다.

1943년, 76세의 일기로 순국하기 전까지 연해주에서 후진 양성에 주력했다.

/ 안자숙 기자

검찰, 野김병욱 측이 기자에 대장동 수사기록 넘긴 정황 포착

“주임검사가 조우형에 커피” 남욱 조서 전달…‘尹커피’ 보도로



족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검찰이 확보한 통화기록 등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봉 기자가 조씨가 수사 무마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진술과 인터뷰를 고의로 누락하고, 민주당 측에서 받은 남씨 조서 내용 등을 짜깁기해 보도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난 17일 JTBC가 공개한 진상조사위 원회 중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봉 기자가 당사자인 조씨로부터 수사 무마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을 여러 차례 확인한 정황이 나타난다.

조씨가 2021년 10월 26일 봉 기자, A PD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주임 검사만 나신 적은 없느냐’는 물음에 “없죠”라고 답했고, 이와 같은 내용의 조씨 진술조서를 봉 기자가 확보했다는 것이 자체 조사 결과다.

봉 기자는 지난해 2월 22일 이씨와의 통화에서도 “조우형 사촌형 연락처도 전해준 정황…배후 세력 추적”은 이번에도 참고인 조사 받았

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만난 게 윤석열이 아니다. 막 이렇게 부인을 해요. 저희 인터뷰 때도 그렇고”라고 말하기도 한다.

검찰은 압수물 포렌식 작업이 끝나 대로 봉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봉 기자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조씨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확인된 사실과 달리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란 것을 끝까지 부인하는 점 등에서 그의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없었고, 측근들의 증언을 통해 검증해 보도했다는 것이 봉 기자 입장이다.

/ 진성훈 기자

제2교시 스쿨존 운전자 교통안전 TE 100점

1.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운전자가 기본으로 지켜야 할 [기·나·다]로 시작하는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은 무엇인가요?
※ 아래의 내용을 채우세요.

**가기 전 살피고,
나부터 멈추고,
다 함께 천천히**

**스쿨존에선 교통안전 100점
[운전자]가 되어 주세요!**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가 나 다 캠페인
어린이, 운전자 모두 함께 실천해요!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QR에 참여해 주세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를 한 기자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측으로부터 대장동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대선 막바지 윤 대통령을 향한 공격 소재로 활용된 이 보도에 민주당 측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배후 세력’을 면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우형 사촌형 연락처도 전해준 정황…배후 세력 추적

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JTBC 소속이었던 봉지욱 기자 관련 압수품 분석 과정에서 봉 기자가 김 의원 측으로부터 ‘대장동 수사기록 파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민간업자 남욱 씨 등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실제로 봉 기자는 지난해 2월 21일 보도에서 ‘수사기록을 입수했다’며 남씨의 2021년 11월 19일자 조서를 공개했다.

남씨가 검찰에서 “조우형이 부산저축

이재명 “尹, 이념전쟁 멈추고 고통받는 국민 목소리 귀기울여야”

“말 따로 행동 따로’ 태도로 국민 우롱…사진 찍기 아닌 실제 현장 가보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대통령과 정부가 부디 이념 전쟁을 멈추고 고물가와 생활고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념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선거 패배 후에 국민의힘은 거리마다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라는 화려한 현수막을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늘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실제 행동이 과연 그러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 이번 순방에서 또 우리 교육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서 이념 논쟁을 다시 제기했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 요즘 말로 ‘말따행파’ 이런 정부 여당의 태도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의 말씀이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

려면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현실에 이념 갈등을 더 하는 이런 행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며 “언행이 일치하는, 정부 여당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경제팀이 출기차게

‘상저하고’ 노래를 불러왔지만, 결론은 우리 민주당이 수없이 강조했던 것처럼 ‘상저하지’”라면서 “너무 따뜻한 방에서 너무 편안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느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외국에 나가서 해외 문물을 익히고 교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며 “국민들만 생각하더라도 이 어려운 삶을 제대로 겨겨보기를 정말 권유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번 가 보라. 사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이라며 “현장 속으로라는 구호만 할 게 아니라 말 따로 행동 따로 할 게 아니라 실제 현장 속으로 가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준영 기자



출근하는 이종석 현재소장 후보자

尹대통령, 이종석 현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현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현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 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병대 수색’ 생존 병사, 전역 후 공수처에 1사단장 고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지난 9월에는 모친이 사단장 고발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훔쳤다가 구조된 해병 A씨가 25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로 했다.

전날 만기 전역한 A씨는 이날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사자로서,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며 “나와 내 전우들이 겪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아갈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게 아니”라며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



추모하는 해병대

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7월19일 해병대의 실종자 수색작업 중 물에 빠져 떠내려

가다가 구조됐으나 함께 수색하던 후임 채 상병은 끝내 사망했다.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 온 A씨는 “밤마다 쉽게 잠들기 어려운 날들을 보냈다. 점점 시야에서 멀어지던 채

상병의 모습이 꿈에 자꾸 나타났다”며 “여전히 채 상병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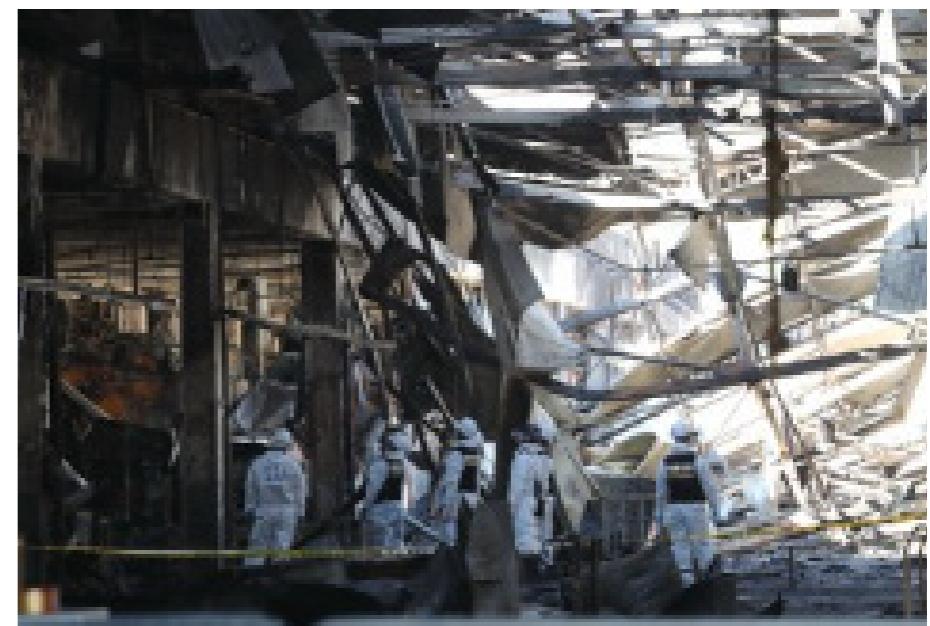
그는 “실종자 수색 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안다.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했고 간부들은 암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면서 “물에 들어가라는

지지도, 안전에 관심 없이 복장과 군인의 자세만 강조하는 지시들도 사실 별로 놀랄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평소 부대에서도 사단장님이 보여주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며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시킨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이러다 사고가 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미 많았고 결국 사고가 났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월13일에는 A씨의 어머니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

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8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대장 2명(중령)의 범죄 혐의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 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중사)에 대해선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로 넘겼다. / 송진영 기자



매천시장 화재

경찰, 대구 매천시장 화재 관련 8명

‘허위공문서작성’ 검찰 송치

경찰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소방시설 점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대구경찰청은 25일 당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과 소방 안전 점검대행업체 직원 등 8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직전에 실시한 시장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보고서를 실제 시설 상태와는 다르게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 박철우 기자

해당 점검대행업체는 지난 2020년부터 관리사무소와 수년째 수의계약을 맺어 소방시설을 매년 점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화재 당시 불이 난 시장 A동 일부 구역에 물을 공급하는 밸브를 수리를 위해 잠가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 6월 대구 강북경찰서는 화재 원인에 대해 “실화·방화 혐의점이 없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결론 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프링클러의 경우는 점검이나 정비를 위한 경우에만 잠그도록 규정돼있다”고 말했다. / 박철우 기자

‘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운동본부장, 사퇴 의사 밝혀



구했다.

이에 식약처장은 “(퇴임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사회에서 부결되며 식약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가 약 4분 뒤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식약처장은 지난 23일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의 해임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의 해임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 이사장에 대해 지난 16일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한정애 의원은 김 이사장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오 처장에게 확답을 요

/ 이선희 기자



교통안전공단, GTX-A 철도시설 건설 현장 점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5일 서울 수서역 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철도시설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내년 초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교통안전공단과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사업시행자인 SG레일 등이 그간 추진된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통안전공단은 GTX-A 현장 기술 지원 및 개통 전 사전 컨설팅, 현장 점

검 등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이 마무리 되는 오는 12월 이후 실시되는 종합시험 운행 결과를 비롯해 전반적인 시설물 상태와 운영 절차, 인력 등을 확인해 철도안전 관리체계 승인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모든 국민이 GTX-A 사업이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적기 개통은 물론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소희 기자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교통경찰관 해임 처분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전북경찰청 교통과 소속이던 A 경장은 지난 5월 24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A 경장을 해임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했다고 보고 해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Hi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앤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아이티테크놀로지** **SK 이스온**

Hi Green
Hi Innovation
Hi Growth
Hi Flex

친환경 에너지로 환경과 사회에 가치를 더하다

그린에너지 Provider로 도약하는
SK인천석유화학과 함께

그린으로 플렉스



NH농협금융

실손보험이 있어 없어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장윤정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

| 갱신형, 무배당 |

점점 쌓이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질병 구분 없이 쉽고 간편하게 돌려받고 든든한 내일을 만드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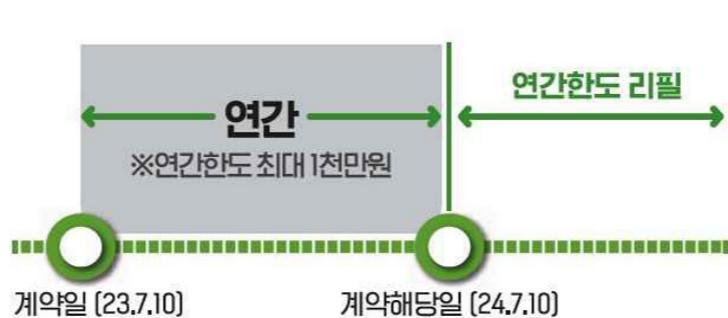
* 요양병원, 정신병원 진료비 제외 * 비급여 제외

1년간 들어간 **본인부담금 보장**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동의 하나로 보험금 지급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간한도 리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주계약 보험료 할인

보험청약 시 고향 사랑기부제 참여 의사 확인

최초계약에 한하여
주계약 보험료 **5% 할인**

[최초계약 납입기간 동안 적용]

보험가입 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이 계약은 2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합니다. 다만,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가 80세를 초과하는 경우 100세 만기 순수보장형으로 최종 갱신합니다. ※ 갱신할 때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보험요율(적용이율, 적용위험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의 변동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변동(특히,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190일 이내인 단기계약 및 전문금융소비자인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사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 사항 등 보험회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하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이 해외환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설계사(교차),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보험설계사(전속)는 하나의 보험사(NH농협생명)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입니다. ※ 보험 상담 또는 불만 사항이 있을 때에는 NH농협생명 내선같은 고객센터(1544-4000) 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 없이 1332, www.fss.or.kr)로 연락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기입자는 기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BUSAN, KOREA | NH농협생명이 응원합니다

내맘같이 &

NH농협생명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내 재산 내 뜻대로 상속하고 싶다면?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상담 가능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지금 바로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보세요



리빙트러스트
바로가기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 365일 24시간 언제나 상담예약 가능합니다 1566-8004



유언대용신탁 13년의 노하우

2010년 출시 이후 13년간 축적된
상속 집행의 노하우와 솔루션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 컨설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부동산 등
각 분야별 전문가의 토탈 케어 솔루션



1:1 맞춤형 상속설계

신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맞춤 플랜으로 상속 설계 및 이행



종합자산 관리 & 운용

상속 전 자산에 대한 전문적인 재산관리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하시기 전에 운용방법의 지정, 해지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보수 : 신탁재산기액의 0.5%~1%, 집행보수 : 신탁재산기액의 0.75%~1.5%, 금전 관리보수(연보수) : 신탁원본평균잔액의 0.3%~1%, 부동산 및 기타 관리보수 :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 신탁보수는 개별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을 통한 상속 및 증여시 관련 법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 (www.kebhana.com)를 참고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0116호 (2023.04.05~2023.11.30) * CC브랜드 230329-0454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광고-0241호(2023.04.05~2023.11.30)

하나은행



세상을 바꾸는 금융

"이 작은 꿀벌이 제 전부고
행복 그 자체입니다"

선인양봉종봉원 박혁진 대표 (23세)

이 작은 친구와 함께 하면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에게
꿀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됐어요

날씨가 좋지 않아도 꽃송이를 오가며 꿀을 모으는
꿀벌들을 보면서 성실함의 가치도 배웠고요

더 열심히 이 소중한 친구들을
지켜줘야겠다고 매일 다짐합니다

처음엔 도전이었던 이 꿀벌이
이젠 제 전부이자 행복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희망들을 KB가 응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희망부자

그 두번째 이야기 ☺

To BEE continued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은 밀원숲 조성 및 도시 양봉을 통해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K-Be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 KB금융그룹

제주올레길 걷는 외국인 여행자 증가…“마을, 바다, 숲 다양”

유럽, 미주, 아시아 지역 다양한 국가서 꾸준히 방문

유럽과 미주, 아시아 지역 다양한 국가의 도보 여행자들이 꾸준히 제주올레길을 찾고 있어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올해 4월부터 외국어에 능통한 자원봉사자들이 외국인과 무료로 함께 걸어주는 프로그램인 워킹메이트를 20회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109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워킹메이트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인 도보 여행자들의 국가는 영국, 스페인, 멕시코, 루마니아, 헝가리, 호주, 미국, 러시아,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코타키나발루 등 19개국이다.

최근 호주의 트레킹 전문 여행사 휴스턴 포츠 하이킹의 마커스 루드릭스 대표는 자신이 코로나19 이전에 제주올레길을 찾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호주 전역에서 30~70대 트레킹 애호가 13명과 함께 제



제주올레 워킹메이트 기념사진

주를 찾았다.

이들은 워킹메이트와는 다른 길동무라는 유료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제주올레길 1코스, 1-1코스, 6코스, 7코스를 걸으며 제주의 자연을 접하고 해녀들을 만났다.

자넷 만레이(64세) 씨는 “마을과 산, 바다를 다양하게 지나는 제주올레길을 친구

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달 초순에 워킹메이트와 함께 6코스를 걸은 러시아인 엘레나 마르코바 씨는 “올레길을 통해 제주도의 매력에 끌 빼쳤다. 내년 봄에 남편과 함께 전 코스 완주에 도전할 생각이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코타키나발루의 대학생들이, 지난주에는 홍콩의 여행 인플루

언서들이 각각 올레길을 걷고 제주올레 여행센터를 찾아 올레길의 역사를 듣기도 했다.

안은주 제주올레 대표는 “제주올레가 수출한 규슈올레, 미야기올레, 몽골올레 등 ‘자매의 길’과 해외 트레일 등이 협력해 공동 홍보하는 10개국 13곳의 ‘우정의 길’ 등을 통해 제주올레길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9월 도입한 ‘제주올레×산티아고 순례길 공동 완주 인증제’가 널리 알려질수록 유럽 및 아시아 도보 여행자들이 제주올레를 더 찾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주올레는 11월 2~4일 제13회 제주올레 걷기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 전날 저녁에는 제주올레 자매의 길과 우정의 길 관계자, 아시아트레일즈 네트워크(ATN) 회원 100여명이 모여 교류하는 ‘글로벌 패밀리 나이트’를 진행한다. / 오현주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기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16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 인근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에서 연 1주기 추모주간 선포 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이태원참사 유족 “1주기 추모대회

29일 서울광장서 개최

10·29 이태원 참사 유기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올해 2월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설치하고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했다.

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거쳐 불허했으나 시민대책회의는 분향소 설치를 강행했다. 시는 무단 점유의 책임을 물어 시민대책회의에 변상금 2천9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5월 서울시가 부과해 고지한 62일간의 서울광장 분향소 사용료와 연체금을 포함한 변상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삼척 외국인 계절근로자, 김치담그며 한국문화 체험

강원 삼척시와 삼척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24일 하장면 복지회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국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 간 화합의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44명, 고용주 25명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김치담그기, 한국 전통 놀이 체험, 한복 입어보기, 농악놀이, 난타 공연 등으로 진행했다.

삼척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그 속에 담긴 정서를 느끼며 친밀도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 김현성 기자



남원시의회·시민 ‘국립의전원 법률 통과 촉구’…의원들 삭발



남원시의원 등 삭발식

전북 남원시의회와 시민들이 24일 상경 집회를 통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률안 통과와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남원시의원들과 시민 등 200여명은 이날 국회를 찾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따른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를 요구했다.

집회에서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발표에 이어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과 강인식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 소태수 특별위원회 위원, 남원애향본부 김경주 이사장이 삭발했다.

전평기 의장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전북과 남원에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을 찾겠다는 정당한 권리로, 당초 당·정·청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폐교된 남원의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남원에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 양승민 기자

‘한복 입고 영남루 거닐어요’ 밀양시, 한복 대여 프로그램 인기



지 700여명이 다녀갔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누구나 2시간 동안 무료로 한복을 입어볼 수 있다. 또 옷고름 매는 법 등 한복 착용법도 현장에서 배울 수 있다. 여성 한복 40여벌, 남성 한복 10여벌이 마련됐다.

한복을 입고 밀양야리랑 우주천문대를 방문하면 무료로 입장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복 대여자들이 전통 한복으로 된 밀양 관이와 영남루를 배경 삼아 사진을 즐겨 찍는다”며 “하루 15팀 이상 찾는다”고 설명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한복 대여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한다. / 남정희 기자



하동군 택시 기본요금 1천원 인상…내달 1일부터 적용

경남 하동군은 내달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4천원에서 5천원으로 1천원 인상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최근 열린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임금·물가 상승률 등 운송원가 상승과 택시업계 경영난 등을 반영해 택시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10년 만에 인상되는 택시요금은 주행거리 2km까지 기본요금은 5천원이고, 2km 초과 130m마다 150원씩 올라간다. 단위시간은 31초당 150원이 부과되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20% 할증, 시계 외 30% 할증이 적용된다. / 한경준 기자

더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 안심인 서울 안심소득···

1. 더 폭넓게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하위 33%까지 지원)

2.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해 소득격차를 완화합니다 (부족 금액의 절반 지원)

3. 근로능력과 부양가족의 입증 절차 등이 간소합니다

4. 일할수록 가처분 소득도 증가해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됩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안심을 보다! **안심소득**



www.ses.g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농촌 여행은 웃음이 익어가는 여행

아이도 어른도
함께 웃으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모두가 그리워하던 여행
마음이 원하는 우리 농촌에서
힐링 여행을 보내세요



‘부산 데뷔전’ 맹활약 허웅 “함성에 짜릿…이게 농구의 묘미”

전창진 감독 “관중 많이 온다는데, 불러놓고 망신당할까 걱정”

“이런 느낌은 오랜만에 받은 것 같아요. 골 넣을 때마다 함성이 들려 짜릿하고 즐거웠어요.”

프로농구 부산 KCC의 ‘부산 데뷔전’ 쾌승을 이끈 허웅은 8천700명이 넘는 팬들이 보여준 열기가 바로 ‘농구의 묘미’라고 표현했다.

KCC는 22일 오후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첫 번째 홈 경기에서 서울 삼성을 106-100으로 격파했다. 22년 만에 전주를 떠난 KCC는 이날 경기를 통해 새 연고지 부산에서 첫선을 보였는데, 8천700명이 넘은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좌석이 모두 둉났다.

23점을 올리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된 허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장내 열기를 돌아보며 “이게 바로 농구의 묘미라고 생각한다”고 웃었다. 이어 “행복했다. 체육관이 큰데, 빙자리가 없도록 계속 찾아와주시면 오늘 같은 경기력으로 보답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사직체육관은 전 층을 모두 활용하면 1만2천여 명을 수용해 프로농구 전체 구단의 홈 경기장 중 가장 많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전 감독은 “오늘 정말 부담이 커다. 이기고는 싶은데, 사실 알리제 드순 존슨이 어제 밤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연습을 하지 않았다”며 “라건아의 몸 상태는 썩 좋지 않아.” “내일도 아프면 어쩌지” 걱정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부산 개막전에 관중이 많이 온다는데, 감독으로서 사람들 불러놓고 망신만 당하는 게 아닌가 고민도 많았다”고 웃었다.

전 감독은 이 경기장을 잘 안다. 수원 kt가 부산에 연고를 둔 2009~2015년 전 감독의 홈 경기장이 사직체육관이었다.

전 감독은 “kt 감독 시절 많은 관중 앞에서 경기해본 후에는 이런 경험이 없다. (이후) 첼피언결정전에 진출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어쨌든 부산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의 은희석 감독도 8천명이 넘는 관중이 자아낸 분위기가 폐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은 감독은 “어린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것 같다. 그런 모습이 감독으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 최준용 기자



롯데 자이언츠 감독 김태형 취임

롯데 지휘봉 잡은 김태형 감독 “화끈한 공격 야구로 우승 도전”

우승 청부사로 롯데 자이언츠 제21대 차례뿐이다. 지휘봉을 쥔 김태형(55) 감독의 취임 일정은 우승이었다.

김 감독은 24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감독 취임식에서 “야구 도시 부산에

2015년 두산 베어스 지휘봉을 잡고

2021년까지 7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을 이끌었고, 그중 세 차례 정상을 차지했다.

김 감독은 ‘독이 든 성배’라는 별명이 붙은 롯데 감독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

“모든 야구인은 감독 제의가 오면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이 따르지만, 기회가 온다면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이강훈 롯데 대표이사와 선수단 대표로 전준우, 안치홍, 구승민, 김원중 등이 참석했다.

이어 3년 계약 기간 목표로 “포스트시

즌에 올라가서 우승하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 감독은 이날 취임식에 이어 25일에는 마무리 훈련이 벌어지는 김해 상동구

장에서 선수단 상견례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 오은성 기자

‘제주 4연패 탈출’ 결승골 김건웅,

K리그1 34라운드 MVP



프로축구 K리그1 제주 유나이티드의 4연패 사슬을 끊어내는 결승골을 터트린 김건웅이 하나원큐 K리그2 2023 34라운드를 가장 빛낸 별로 뽑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4일 “김건웅이 22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선제 결승골을 넣어 제주의 2-0 승리를 이끌었다”라며 MVP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승리로 제주는 최근 4연패를 합쳐 7경기(1무 6패) 연속 무승의 부진에서 벗

김승우(광주), 임재민(제주), 이기혁(제주)

이 이름을 올렸고, 골키퍼는 이준(광주)에 게 돌아갔다.

34라운드 베스트팀으로는 강원FC전에 서 2-1 승리를 따낸 FC서울이 선정됐고, 베스트 매치는 대구FC-전북 현대전(전북 2-1승)이다.

한편, K리그2 36라운드 MVP는 22일

안산 그리너스전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한 김천상무의 최병찬이 뽑혔다.

오기노 감독 “한 경기 서브 범실 10개·공격 범실 8개 이하로”



남자 프로배구 사상 세 번째 외국인 사령탑인 오기노 마사지 OK금융그룹 감독이 체질 개선의 첫 단추로 ‘범실 최소화’를 내걸었다.

오기노 감독은 24일 경기도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리는 KB손해보험과의 방문경기를 앞두고 “한 경기당 서브 범실 10개 이하, 공격 범실 8개 이하를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오기노 감독은 “일본 리그는 경기가 5세트까지 가도 공격 미스가 5개 이하이기 때문에 (범실 최소화) 목표로 연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2023 정규시즌 전체 7개 팀의 한 경기 평균 서브 범실은 15.69개, 공격 범실은 7.22개였다. OK금융그룹의 경우 서브 범실 16.56개, 공격 범실 6.86개를 기록했다. 특히 서브 범실에 있어 과도한 목표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지

세계 여자 3쿠션 선수권 우승한 이신영, 프로당구행 선언



세계 여자 3쿠션 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랐던 이신영(43)이 프로당구에 도전장을 냈다.

프로당구협회(PBA)는 23일 “지난달 3쿠션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이신영이 여자프로당구 LPBA 이적을 선언했다”고 발표했다.

이신영은 한국 여자 3쿠션 대들보 노

리를 해온 선수로 2011년 데뷔 이래 국내 정상급 선수로 활약했다.

지난달 뒤티카에 양카라에서 열린 제11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한국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정상에 올랐다.

이신영은 “프로 무대에 오게 돼 설레고 기쁘다. 선수 생활 목표로 했던 세계 정상에 오른 뒤 새로운 동기 부여가 필요했다.

더 큰 무대에서 시험하고 싶다”고 도전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금 해왔던 대로 한다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 박정호 기자

세계로! 미래로! Global No.1 한전KPS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대한민국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온 한전KPS,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딩기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

한전KPS

Global No.1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www.kps.co.kr

'고려 거란 전쟁' 강렬 카리스마 담은 3인 포스터 공개!

배우 김동준, 지승현, 최수종이 혼돈에 빠진 고려 구해내기 위해 의기투합

고려 거란 전쟁'의 배우 김동준, 지승현, 최수종이 혼돈에 빠진 고려를 구해내기 위해 의기투합한다.

오는 11월 11일 첫 방송되는 KBS 공영방송 50주년 특별 기획 KBS 2TV 새 대하사극 '고려 거란 전쟁'(극본 이정우/ 연출 전우성, 김한솔/ 제작 몬스타유니온, 비브 스튜디오스)은 관용의 리더십으로 고려를 하나로 모아 거란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고려의 황제 현종과 그의 정치 스승 이자 고려군 총사령관이었던 강감찬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오늘(24일) 공개된 3인 포스터에는 고려 제8대 황제 현종(김동준 분)과 그의 양 옆에 양규 장군(지승현 분)과 강감찬 장



군(최수종 분)이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다.

먼저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지승현과 최수종 사이 뒤돌아 서 있는 김동준은 황금빛이 일렁이는 곤룡포와 관모를 장착한 채 먼 곳을 응시하고 있다. 고려를 꼭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김동준의 비장한 눈빛이 암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런가 하면 김동준의 좌우로는 양규 장군과 강감찬으로 분한 지승현과 최수종의 모습이 담겨 있다. 두 사람은 치열한 전장에서 있는 듯 적을 향한 적대감은 물론 언제라도 거란군을 향해 돌진할 준비가 돼 있는 용맹한 장군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특히 최수종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이어진 전장으로 쌓인 세월이 고스란히 스

며들어가 있고, 거란군을 상대로 고려를 지키기 위해 필사의 전략으로 대비하는 강감찬 장군의 모습과 함께 귀주 대첩 승리의 카타르시스를 예고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뒤에는 불에 타고 있는 개경궁부터 찬란한 번영의 꽃을 피우는 모습이 대비를 이루고 있어 앞으로 이들이 걸어갈 운명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 시킨다.

웰메이드 대하 사극의 진면목을 보여줄 KBS 공영방송 50주년 특별 기획 KBS 2TV 새 대하사극 '고려 거란 전쟁'은 오는 11월 11일(토) 저녁 9시 25분 첫 방송된다.

/ 이지승 기자

서울 중구, 제12회 서울충무로영화제 27일 개막



이 상영되고 최영준 변사의

공연도 열린다.

영화제에서는 총 36편을 만날 수 있다. '접속', '봄날은 간다', '장화, 홍련' 등을 충무아트센터와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중구 일대에서 상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cffs.kr)와 인스타그램(@cffs_official)에

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가 끝난 후 개최되는 만큼 '마을극장' 코너를 신설해 남산골 한옥마을 등 관내 곳곳을 찾아간다. 영화제는 다음 달 1일 충무아트센터에서 막을 내린다. 폐막작은 '베드 랜드'(Bad Lands)다. 한국에서 처음 상영하며 하라다 마사토 감독의 무대인사도 예정돼 있다.

/ 김진수 기자

에이핑크, MBC '아이돌라디오 라이브 인 서울' 완전체로 뜨겁게 달궜다!



들의 히트곡들을 열창하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첫 곡으로 'DND'를 부르며 등장해 밝은 에너지로 무대를 꽉 채운 에이핑크는 명불허전 완벽한 라이브 실력으로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뽐냈다. 이어 '리멤버'(Remember)까지 대표 히트곡 무대를 연달아 선보인 에이핑크는 자연스러운 무대 매너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고, 신나는 퍼포먼스로 공연장의 열기를 더했다.

에이핑크는 여전한 미모와 팀 케미를 선보이며 데뷔 13년차 '롱런 걸그룹' 다운 여유로움이 가득하면서도 열정 넘치는 무대를 선사했다.

'롱런 아이돌'의 대표적인 좋은 예로 솔직하고 있는 에이핑크는 현재 개인 활동은 물론 완전체 활동을 병행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김자은 기자

인기 걸그룹 에이핑크(Apink)가 케이팝 대표 걸그룹다운 무대를 펼쳐 보였다.

에이핑크는 22일 저녁 방송된 MBC 라디오 콘서트 '아이돌라디오 라이브 인 서울'(IDOL RADIO LIVE IN SEOUL)에 출연해 완벽한 라이브 공연을 선보였다.

이번에 방송된 '아이돌라디오 라이브 인 서울'은 지난달 2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공연으로 에이핑크는 자신

'싱어게인 시즌3' 우승자는 누가 될까?



'싱어게인 시즌3-무명가수전'이 '믿고 보는' 수식어를 이어간다.

JTBC '싱어게인-무명가수전'은 무대가 간절한 가수들이 다시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신

개념 리부팅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 26일 밤 10시 시즌 3가 첫 방송된다.

'싱어게인'은 지금까지 두 번의 시즌을 거치며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한 참가자들의 도전과 경쟁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조명하며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참가자들의 탄탄한 실력이 돋보이는 무대로 매회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던 만큼 새 시즌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쟁쟁한 역대 우승자 라인업을 자랑해 이번 시즌의 우승자는 누구일지 기대감을 더한다.

시즌3 본선 진출팀 명단과 1회 예고편, 선공개 영상을 통해서 낯익은 참가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시즌3에는 심사위원장을 맡은 오디션계의 살아있는 전설 윤종신을 비롯해 데뷔 37년 만에 처음 심사위원에 도전하는 임재범, 가요계의 여왕 백지영, 전 세대를 사로잡은 프로듀서 코드 쿠스트리 역시 궁금해진다.

이들의 심사는 물론 '싱어게인'의 티죽대감 김이나, 규현, 이해리, 선미와의 케미스트리 역시 궁금해진다.

이처럼 기다림의 이유가 가득한 JTBC '싱어게인 시즌3-무명가수전'은 오는 10월 26일 목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 윤유선 기자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관계" 라며 교제 사실을 인정한 지 약 두달 만이다. 지수는 지난 2016년 8월 블랙핑크의 리드보컬로 데뷔해 개성 있는 음색과 빼어난 외모로 글로벌 인기를 누렸다.

안보현은 2007년 모델로 데뷔한 이래 '아태원 클라쓰'(2020), '유미의 세포들'(2021), '군검사 도베르만' (2022) 등에 출연해 배우로도 얼굴을 알렸다. 최근 종영한 tvN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이번 생도 잘 부탁해'에 주연으로 보도한 후 곧바로 "좋은 감정으로 서로를 출연했다.

/ 흥민기자

경찰연합신문

www.koreapolice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영민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민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에 투자할 때입니다

BUY KOREA BUY BOND

세상을 바꾸는 금융

**대한민국 국공채, 국내 우량채권을
KB증권에서 투자하세요**

KB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2-03595호(2022년 10월 28일~2023년 10월 27일)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기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 원금손실 발생 가능하고, 발행사의 부도, 파산 시 원금 100%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0, - 순으로 구분됩니다.

K-콘텐츠,
단디 준비했다 아이가
[영화의 전당에서, 부산 연극영화극단 김현준 이태민 최명경 님]

2030 부산세계박람회
**BUSAN
IS READY!**

부산에서 시작해 전세계가 함께하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가치를 위하여

**미래,
같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LG